

# 5·18 보상 신청 8년만에 재개...주먹구구 행정 눈살

### 시 "시행령 없다"며 홍보 미흡...신청자들 접수 시작된 줄도 몰라 신청 대상·보상 기준도 없어 혼란만...시 "심사 기준 확정 안된 탓"

광주시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신청 접수를 8년만에 재개했으나, 구체적인 신청대상·보상 기준도 정하지 않은 채 '일단 접수해 보라'는 식으로 신청을 받고 있어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시행령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8차 접수 홍보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신청희망자들은 접수가 시작된 줄도 몰랐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광주시는 3일 광주시청 민원소통실에서 '5·18민주화운동 제8차 보상 서류 접수' 장구를 열었다. 이번 보상신청 접수는 지난해 12월 27일 '5·18보상법'이 개정된 데 따라 이뤄진다.

지난 1990~2015년까지는 5·18 관련 사망·행복

자, 상이자, 질병·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자, 수배·연행자 등만 보상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이번부터는 5·18 관련 해직자, 학사징계자, 성폭력 피해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또 상이(기타 1급·2급)자 중 재분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체 검사를 해 재판정을 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이후 광주시 자체적으로 사실조사 및 5·18 관련 여부 심사 분과위원회, 장애등급 판정위원회 등 소위원회를 거친 뒤 5·18관련자 보상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하지만 신청 첫 날부터 광주시청 민원실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불평이 터져나왔다. 구체적인 신청

대상자 명단이나 보상 기준도 없고 어떤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모호하다는 것이다.

추가 신청 대상자인 해직자, 학사징계자,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신청인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5·18관련 해직자 중 해직연인인의 경우 직접 강제해직을 당한 언론인만 해당되는지, 1980년 7월 신군부의 정기간행물 폐간조치와 같은 해 11월 언론통폐합 등에 휘말린 피해자들도 포함되는지 등 기준이 관련법에 명시되지 않았다.

보상 지급액 기준도 아직 없다. 이 기준은 올해 말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할 예정이며, 광주시는 일단은 신청서를 최대한 모은 뒤, 추후 마련되는 기준안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광주시는 접수처를 찾은 신청인에게 어떤 피해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안내하지 못하고, "일단 관련된 건 다

첨부해보시라"는 조언만 반복하고 있었다.

홍보·안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신청 접수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들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기준 관할 정부기관인 행정안전부뿐 아니라 광주 5개 자치구 등 어느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접수 사실을 알리는 안내문을 찾아볼 수 없었다. 광주시 홈페이지에서만 배너 광고로 짧게 표시하는 것이 전부였다.

대다수 5·18보상신청 대상자들은 문자 통보조차 받지 못했는데, 기존에 광주시에 보상 관련 문의를 했던 이들에게 한해서만 문자메시지 통보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문자에는 '5·18보상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되어 안내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신청기간·장소·자격을 안내하는 데 그쳤으며, 최소한 무엇에 대한 신청 안내인지조차 쓰여있지 않았다.

반드시 광주시청을 방문해 현장 접수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걸린 점도 비판을 받았다. 추가 신청

대상자만 해도 수천여명 수준으로 추정되는데다 전국 각지에 퍼져있는 상황인데, 이들 모두가 반드시 광주시청을 방문해야만 접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승우 80년해직언론인협회 공동대표는 "대상자를 제대로 파악해 보지도 않고, 통보도 제대로 안한 채 '장구를 열었으니 알아서 신청하시라'는 것은 지나치게 행정편의주의적이다"며 "보상 신청 기준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채 신청부터 받고, 연말에나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 또한 주먹구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5·18보상법 개정안이 보상 접수 시작일을 7월 1일로 명시하고 있어 다소 준비가 안 된 상태라도 접수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며 "심사가 추후 어떤 기준에 맞춰 이뤄질지 모르는데 우리 시가 함부로 대상자와 보상지급 가능 여부를 판단해 알려줄 수 없는 처지다"고 해명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청바지 데이'를 아시나요**  
광주시 북구청 직원들이 3일 광주시가 정한 청렴주간 '청바지 데이'를 맞아 청사 앞 광장에서 구청이 준비한 커피를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청바지 데이'는 '청렴하고 바르고 지혜롭게'와 '청렴은 바로 지금부터'라는 두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조종태 광주고검장 14일 퇴임식

조종태(56·사법연수원 25기) 광주고등검찰청장이 14일 퇴임식을 갖는다.

3일 광주고검에 따르면 조 고검장이 최근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돼 오는 14일 퇴임식이 열린다.

조 고검장은 7월 중순께 예정된 검찰 내 고위 간부 인사이동을 앞두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조 고검장의 퇴임 후 거취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 2021년 6월 광주고검장에 취임 한 조 고

검장은 '검찰개혁법안'(수사·기소 분리법안, 일명 검수완박) 입법에 반발해 지난해 4월 전국 고검장 5명과 함께 사의를 표했지만 반려했다.

경남 함안 출신으로 1996년 수원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장·범죄예방기획과장,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광주고검 차장검사, 춘천지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을 역임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노동 탄압 반발 민노총 광주·전남본부 총파업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광주·전남 본부가 2주간의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총파업은 전국단위 총파업으로 산별노조 순환 파업 형태로 진행된다.

민노총 광주지역본부와 전남지역본부는 3일 오전 각각 국민의힘 광주시당과 전남도당 앞에서 총파업 돌입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권 퇴진'을 주장했다. 현 정권이 민주주의를 위해 사용하도록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노동자 탄압과

민생·민주·평화 파괴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총파업 핵심 의제로는 ▲노조탄압 중단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최저임금 인상 ▲민영화·공공요금 인상 철회 ▲공공의료·돌봄 확충 ▲과로사 노동시간 폐기 ▲언론과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등을 내세웠다. 파업은 서비스 연맹, 공무원 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각 분야별로 하루씩 진행된다. 광주는 6일 서비스연맹을 시작으로 15일까지 이어진다.

/김민지 기자 kdi@

## 의예과, 전남대 419점·조선대 416점...한전공대 396점

**6월 모평 기준 지방 가능 대학은**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실채점 결과 전남대 인문계열 영어교육과는 364점, 의예과는 419점대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조선대 의예과는 416점, 광주교대는 360점,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393점,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396점 안팎으로 지원선이 형성됐다.

광주진로진학부장협의회, 진로진학지원단 진학분석팀이 3일 광주지역 고교 6월 모의평가 실채점 접수(국·수·탐 3개 영역 표준점수 600점 만점 기준)를 분석, 지원 가능 대학을 발표했다.

전남대 인문계열 지원가능 점수는 340점 안팎이었다. 과별로 영어교육과는 364점, 국어교육과

광주교대 360점·GIST 393점  
서울대 인문 397점·자연 399점

362점, 행정학과 360점, 경영학부는 355점, 정치외교학과 348점, 국어국문학과 346점이었다.

자연계열 지원가능 점수는 수학 지정(미적분·기하) 학과 351점, 수학 미지정(확률과통계·미적분·기하 모두 지원 가능) 학과는 346점 안팎으로 추정됐다. 과별로는 의예과 419점, 치의학과 412점, 약학부 407점, 수의예과 400점, 전기공학과 387점, 간호학과 365점, 인공지능학과 362점이었다.

조선대 의예과는 416점, 치의예과 409점, 약학과 404점, 간호학과 345점이 지원 가능 점수다. 진

로진학부장협의회는 조선대의 경우 정시 선발 비율이 2023학년도 20.5%에서 올해 8.8%로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도권 대학의 경우 서울대 인문계열은 397점 내외, 자연계열은 399점 내외에서 지원 가능하다.

고려대-연세대 인문계열은 394점, 자연계열 394점이 지원가능 점수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배치 기준 학과와 배치군은 2024학년도 전형 계획에 따른 것으로 정시전형 확정 발표시 변경될 수 있다"면서 "단순 지원 가능 점수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야 하며, 대학별 환산점수로 계산해 유·불리 정도를 판단해 해당 모집단위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 광주 마을버스 24일 예정된 파업 철회

광주 마을버스 업체들이 오는 24일로 예고했던 '운행 전면 중단' 계획을 철회하고 정상 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라운수', '나라버스', '광남운수', '석봉운수', '광산버스' 등 5개 업체로 구성된 광주마을버스조합은 3일 광주시와 면담을 갖고 파업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합은 지난달 27일 광주시 5개 구청에

휴차 신청서를 제출하고 7월 광주시 추경에 마을버스 저차운영지원금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오는 24일부터 6개월 동안 광주 시내 12개 노선 85대의 마을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조합은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광주시와 적자 보전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해가기로 약속한 데 따라 파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